

##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배포 현황 및 대응 방안

| 한승원 |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_HJ컬처(주) 대표 |

### 1. 서론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 해제 후 일년이 넘는 지금 공연계는 빠르게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고 있다. 예술경영지원센터의 『2022년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sup>1)</sup>에 따르면 2022년은 한국 공연시장의 티켓 판매 규모가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전인 2019년보다 43%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중 뮤지컬 분야의 회복세가 두드러진다. 2022년 한 해 738만 명이 뮤지컬을 관람했으며,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공연예술계 전체 티켓 판매액의 76%에 달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뮤지컬 시장이 공연계를 견인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표1. 2022년 전체 시장 대비 뮤지컬 시장 현황

구분	공연건수		공연회차		티켓판매수		티켓판매액	
	(건)	비중(%)	(회)	비중(%)	(매)	비중(%)	(원)	비중(%)
전체	14,447	100	89,474	100	13,661,978	100	558,971,959,083	100
뮤지컬	7,778	19	34,011	38	7,378,520	54	425,293,776,939	76

출처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2년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보고서』

한편, 뮤지컬 업계는 현재 '밀녹·밀캠'이라 불리는 공연 무단 촬영·녹음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가 심각하다. 밀녹·밀캠 자료는 인터넷상에서 검색해서 쉽게 찾아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렇게 무단으로 촬영된 영상 및 음원을 판매하는 행위까지 성행하고 있다. 2023년 상반기에 한국저작권보호원에 접수된 사례만 2,800여건에 달한다.

이는 변화하고 있는 뮤지컬 소비 행태와도 관련이 있다. 유료 온라인 공연 시장이 형성된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발생 이후부터 시작된 유료 온라인 공연이 팬데믹이 종료된 현재까지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이렇게 공연 영상 시장이 새롭게 형성되는 등 디지털화 되어가는 상황에서 불법 촬영 문제 해결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공연을 몰래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을 뿐만 아니라, 현재 밀캠과 밀녹의 처벌은 유통과정에서만 가능하고, 이조차도 가벼운 벌금에 그치는 실정이다. 지난 2020년 밀캠 근절을 위해 실효성 있는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지만 국회 계류 중이다.

1) 예술경영지원센터가 인터파크, 티켓링크 등 182개 발권시스템의 데이터를 연계, 수집한 형태로 공연법 개정 따라 2019년부터 매년 발표하는 통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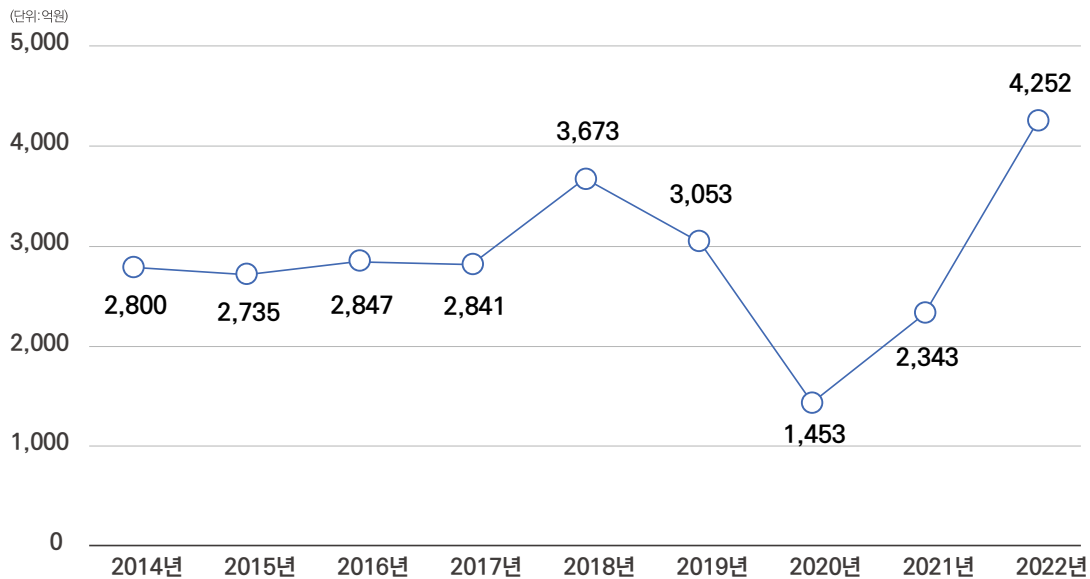
이에 본 원고에서는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배포 현황에 대해 살펴보고, 변화하는 뮤지컬 공연 시장에서 정부와 민간 차원의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 2. 변화하는 뮤지컬 공연 시장

### (1) 뮤지컬 시장의 성장과 대중화

국내 뮤지컬 시장은 지난 2018년 3,673억 원대 규모로 성장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시장 규모가 빠르게 위축되었고, 2020년에는 1,435억 원대로 축소되었다(더뮤지컬, 2023). 하지만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뮤지컬은 다른 장르와 비교해 빠른 회복세를 보이며 2022년에는 4,253억 원이라는 역대 최고 티켓 판매 매출을 기록했다(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코로나19 이전 가장 높은 티켓 판매액을 기록한 2018년과 비교하더라도 16% 증가한 것으로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4,000억 원대에 진입한 것은 2022년이 처음이다. 뿐만 아니라 뮤지컬 관객 수도 크게 증가했는데,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600만 명대 전후로 추정되는 관객수는 2022년 737만 명으로 늘어나, 약 20% 가량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1. 국내 뮤지컬 시장 규모 변화



출처 : 인터파크 연말 보고서 및 KOPIS 공연 통계 자료\*

\* KOPIS 공연 통계 자료가 없는, 2014년부터 2019년까지 뮤지컬 티켓 판매액은 인터파크 연말 보고서 참고

이러한 뮤지컬 시장의 빠른 성장은 뮤지컬이 빠르게 대중화 되고 있다는 방증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빠른 성장 탓에 성장한 산업의 규모에 필요한 관련 법령 등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이 부족하며, 수용자의 뮤지컬 저작권에 대한 인식 또한 낮은 것이 현실이다.

## (2) 온라인 공연 시장의 형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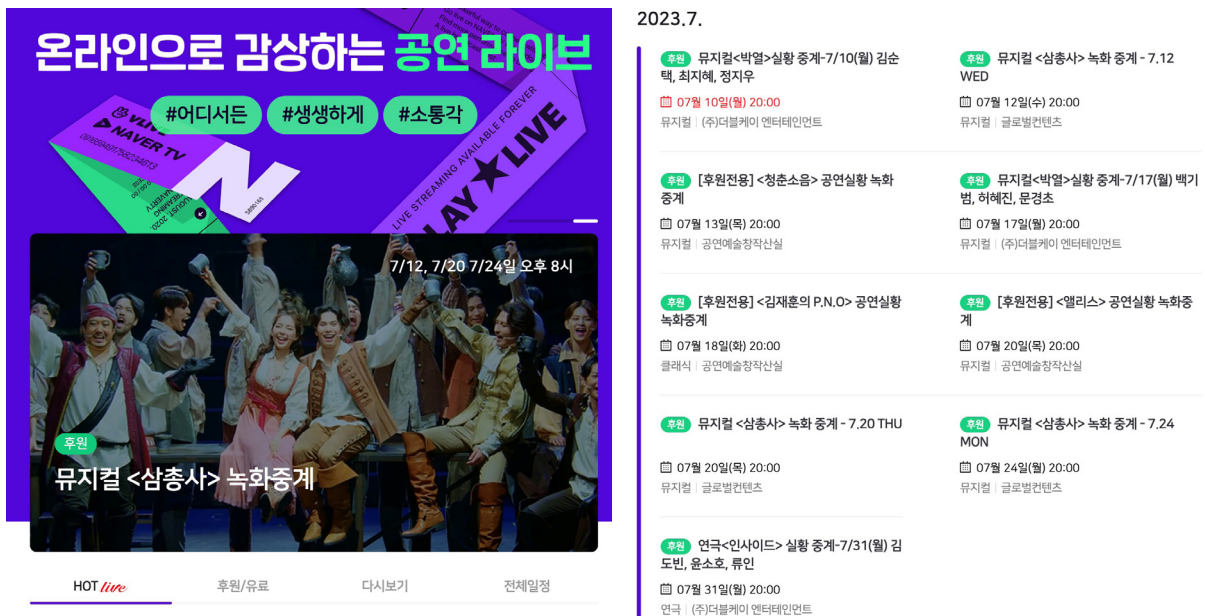
코로나19 팬데믹 이전까지 온라인 공연은 '직접 관람'의 대안이 아닌 공연 홍보 또는 문화격차 해소를 목적으로 무료로 중계되었다(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그러나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한 오프라인 공연 취소나 객석 띄어앉기 등 제한으로 정상적인 공연 진행이 어려워져, 2020년부터 '직접 관람'의 대안으로 유료 온라인 공연이 시작되었고, 이를 기점으로 네이버와 카카오 등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공연이 활발히 진행되었다.

2021년 1월 한겨레의 보도에 의하면, 유료 온라인 공연이 시작된 2020년, '네이버 공연 라이브' 진행 건수가 600여회, 누적 시청 횟수는 1,500만회로 2019년보다 진행 건수는 7.5배, 시청 횟수는 12.5배 늘었다.

온라인 공연 시장에서도 뮤지컬의 강세는 이어졌다. 같은 기사에 따르면 당시 네이버 공연 라이브에서 가장 많이 진행된 장르는 클래식이고, 관객이 가장 많은 장르는 뮤지컬이었다. 2023년 7월 10일 기준 '네이버 공연 라이브'에 예정된 온라인 공연 9편 중 6편이 뮤지컬이다.

또한 티켓 판매 사이트 예스24에 의하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어 정상적인 공연 운영이 가능해 졌음에도 불구하고, 2022년 온라인 공연 판매액은 2021년의 24배에 달하는 성장을 보였다. 팬데믹 시기였던 2021년 온라인 공연 판매액은 2020년에 비해 9배 증가한 것과 비교해도 폭발적인 성장 수치이다(시흥타임즈, 2023).

그림2. 네이버 공연 라이브 화면 캡처



이런 수치는 이제 온라인 공연이 공연제작사 뿐 아니라 관객에게도 '직접 관람'의 대안이 아닌 하나의 새로운 공연 및 관람 형태로 자리 잡고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2021년 공연실황 OTT 플랫폼 레드컬튼이 진행한 ‘연극·뮤지컬 실황 영상 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공연의 주 소비계층인 20대~40대 여성 625명 중 72.5%가 연극·뮤지컬 영상화 콘텐츠(VOD·생중계 등)에 ‘관심이 있다’고 답해, 이러한 경향을 뒷받침 한다.

이렇게 뮤지컬을 소비하는 관객이 늘어나고, 온라인 상영을 통해 영상화된 공연을 쉽게 접할 수 있는 등 뮤지컬 생태계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저작권을 침해하는 공연 무단 촬영 문제 해결이 시급한 상황이다.

### 3.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의 뮤지컬 저작권

뮤지컬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에 해당한다(저작권법 제2조 제1호). 이렇게 뮤지컬과 같이 다수의 창작자가 함께 작업해 만든 저작물에는 공동저작물과 결합저작물이 있다. 이는 저작물에 대한 각자의 기여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있는지 여부에 따라 구별된다.

“결합저작물”은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해 이용할 수 있는 것을 뜻한다. 그 예로 음악저작물에서 음악과 가사 부분이 여기에 해당한다. 결합저작물에서 각 기여부분은 독립된 저작물이 되고, 각각의 저작권자가 독립적인 저작권을 가지므로 자신의 저작물의 이용에 관한 사항 역시 각자가 결정할 수 있다. 뮤지컬, 연극, 오페라가 대표적인 결합저작물이다(김민정, 2019).

뮤지컬은 어문, 음악, 무용, 응용 미술 저작물에 연출, 연기 등의 결합으로 그 구성 형태가 타 공연예술에 비해 규모가 크고, 복잡할 뿐만 아니라 영화, 만화, 드라마, 소설 등의 콘텐츠를 뮤지컬화 하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권리관계 역시 복잡, 다양화 되어 가고 있다(이지향, 2010).

그러나 현행 저작권법 제104조의6에서 금지하고 있는 영상저작물 녹화 등에는 공연 저작물이 포함되지 않는다.

제104조의6(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누구든지 저작권으로 보호되는 영상저작물을 상영 중인 영화상영관 등에서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기기를 이용하여 녹화하거나 공중 송신하여서는 아니 된다.

이렇듯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아, 이러한 행위를 처벌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뮤지컬은 각본, 음악, 가사, 안무, 실연, 무대예술 등이 종합된 결합저작물이고, 앞서 살펴본 것처럼 무대를 넘어 플랫폼이 다변화됨에 따라 저작권 현안이 다수 발생하고 있어, 뮤지컬을 위한 저작권법률안이 필요한 현실이다.

이에 2020년 12월 11일 김홍걸 의원(외교통일위원회)이 불법 공연 영상을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 공연물의 무단 녹화 및 공중송신행위를 처벌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연기·무용·연주·가창이나 그 밖의 예술적 방법으로 표현하여 공연되는 저작물을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음 또는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근거를 마련한 것이지만, 아직까지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있다.

#### 4.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배포 및 대응 현황

뮤지컬 업계는 현재 '밀녹·밀캠'이라 불리는 공연 무단 촬영·녹음 배포로 인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해결하고자 노력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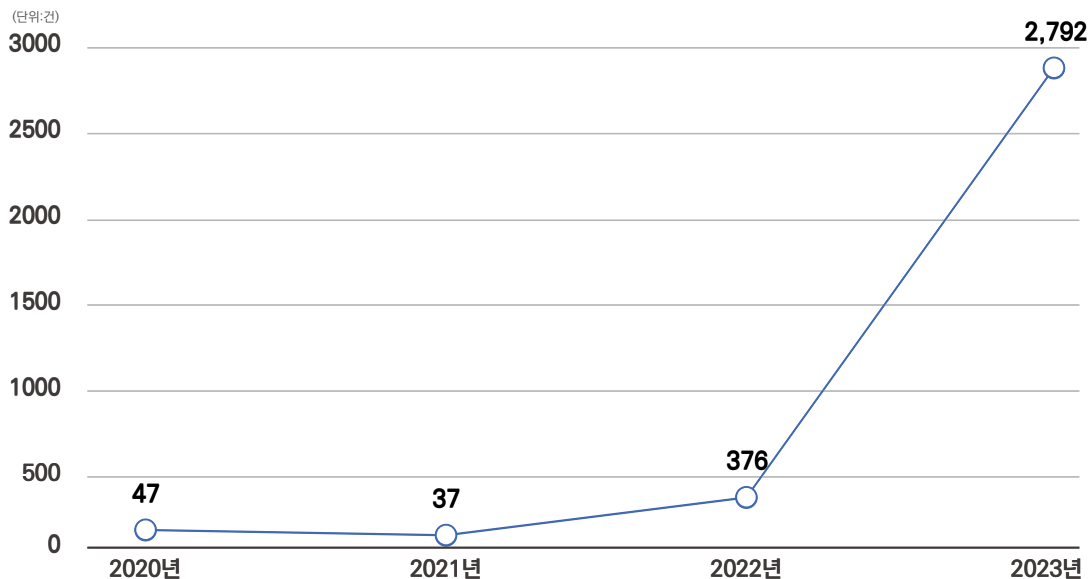
이런 노력의 일환으로 (사)한국뮤지컬협회와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2022년 6월 공연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 <밀녹밀캠 NO! 눈으로 담고 마음으로 남기세요>을 진행하고, 캠페인의 일환으로 '뮤지컬 밀녹·밀캠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기도 했다.

신고대상은 뮤지컬을 무단 촬영·녹음한 파일과 뮤지컬 실황 중계 영상 및 공식 OST·DVD를 불법 복제하여 온라인상에서 교환·판매하는 행위이고, 신고기간 당시 일주일만에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 계정으로만 120여건이 접수되어 문제의 심각성을 알 수 있었다. 이들은 수백 개에 이르는 밀녹·밀캠 자료 목록을 보유하고 있으며, 대극장 뮤지컬 한 편의 고화질 밀캠을 R석 티켓가에 맞먹는 10만 원대에 거래하고 있었다.

(사)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는 이러한 저작권 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2022년 9월 한국저작권보호원과 업무협약을 맺어,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배포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도 했다. 모니터링 강화 이후 약 2,800건의 무단 촬영·녹음 건이 신고, 접수되었다.

표2. 2023년 7월 3일 기준 한국저작권보호원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신고 현황

년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건수	47*	37*	376***	2,792****



\* 보호원 모니터링 1건, 일반인 신고 46건    \*\* 보호원 모니터링 1건, 일반인 신고 36건  
 \*\*\* 권리자 신고 11건, 일반인 신고 365건    \*\*\*\* 보호원 모니터링 2,699건, 일반인 신고 93건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자료에 의하면 대부분이 네이버 블로그를 통해 판매나 교환을 진행하고 있으며, 중고나라나 번개장터 등을 이용한 거래도 있다. 2022년부터 신고 건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은 2022년 9월부터 '밀녹·밀캠 근절 캠페인'이 진행되었고, 한국뮤지컬제작사협회와 한국저작권보호원 간 업무협약으로 뮤지컬 무단 촬영·녹음 배포에 대한 모니터링이 본격화되었기 때문이다. 특히, 2023년 7월 3일 기준 전체 신고 2,792건 중 한국저작권보호원의 모니터링을 통한 신고 건수가 2,699건으로 저작권 침해를 관리하는 전담 기관의 필요성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밀녹·밀캠'을 유통과정에서 적발하여 처벌하더라도, 가벼운 벌금에 그쳐 밀녹·밀캠을 유통하면서 벌어들이는 금액에 비해 처벌 수위가 너무 가볍다 보니, 실효성이 떨어지고 근절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실제로 2019년 뮤지컬 제작사가 불법 판매자들을 확인해 고소하였으나, 증거불충분, 저작권교육 조건부 기소유예, 50만 원에서 300만 원의 벌금형을 받는 등 가벼운 처벌에 그쳤다. 심지어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판매 목록에서 해당 제작사의 작품 관련 자료만 삭제하고 다시 불법 판매를 재개하기도 했다. 벌금보다 불법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이 훨씬 크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영화와 같은 영상저작물의 경우 무단 녹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확하다. 영상물을 무단으로 찍는 행위만으로도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심지어 개인소장 목적이라 하더라도 예외를 두지 않으며, 녹화를 하려고 한 미수행위 또한 처벌이 가능하다.

음악 산업의 경우 한국음반산업협회 등의 저작권 신탁관리단체가 개별 대응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 관련 문제를 공동으로 관리해 효율적으로 권리자의 권리 보호와 권익증대에 앞장서고 있다.

하지만 공연의 경우 촬영하는 행위 자체를 제재하는 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공연 중 무단 촬영을 목격한 관객이 제작사측으로 제보하더라도 촬영행위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다른 관객들의 관극에 방해가 될까 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워, 공연장 관계자가 '카메라 꺼주세요'라고 권유에 그칠 수 밖에 없다. 게다가 몰래 녹음하거나 촬영한 파일을 클라우드 서비스에 업로드하여 저장한 뒤 기기에서는 바로 삭제하는 경우도 많아 단속이 더욱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유통과정에서만 처벌이 가능한데, 온라인상의 불법거래행위를 신고하는 것도 간단치 않다. 신고를 위해서는 제작사가 직접 영상을 구매해서 실물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고, 또한 저작권 위반 신고를 하더라도 불법 판매 글을 게시한 블로그가 자체가 폐쇄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게시 글만 삭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만약 어떤 블로그에 불법 판매 글이 열 개 게시되어 있다면 열 개의 게시물을 일일이 신고해야 한다.

공연 콘텐츠의 특성에 맞는 실효성 있는 처벌근거를 통한 저작권 침해 대응 방안이 요청되는 이유이다.

## 5. 결론 및 제언

뮤지컬 시장은 지난 20년간 연평균 20% 이상 고성장을 보였고, 2022년 기준 뮤지컬 티켓 판매액이 공연예술계 전체 티켓 판매액의 76%에 달하는 등 공연예술계를 견인하고 있는 콘텐츠 산업이다. 뮤지컬 산업의 성장과 더불어 코로나19로 가속화된 공연 산업의 디지털화로 인해, 뮤지컬 시장에도 온라인 공연 시장이 형성되는 등 생태계의 변화를 맞이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 법제도 미비 및 관람 문화 미성숙으로 인해 '밀녹·밀캠'이라 불리는 공연 무단 촬영·녹음 배포로 인한 심각한 저작권 침해 문제를 겪고 있다.

뮤지컬은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인 탓에, 뮤지컬 저작물 보호를 위한 법률이 아직 제정되지 못했고, 지난 1월 8일에서야 공연법과 문화예술진흥법상에 독립된 장르로 명기되고 현재 뮤지컬산업진흥법 법안이 발의되었다.

뮤지컬 산업이 빠르게 성장하고 대중화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뮤지컬 저작권 생태계 조성과 구체적인 규정은 필수적으로 정립해야 할 부분이다. 뮤지컬 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건강한 공연관람 문화 형성을 위한 대응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제정을 통해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저작권법 제104조의6은 영상저작물 녹화 등의 금지 조항으로 지금까지의 저작권법은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에서 공연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자의 허락 없이 녹화하거나 공중송신하는 행위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 따라서 무단 촬영을 발견하더라도 제지할 법적근거가 없고, 유통과정에서만 처벌 할 수 있는 등 실효성이 떨어지는 제재만 가능했다. 따라서 현재 국회 계류중인 '저작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가 필요하다.

둘째, 무단 촬영 및 녹음으로 인한 저작권 침해에 대응할 통합 서비스 체제 구축이 필요하다. 이러한 체계의 구축과 더불어 저작물의 원활한 이용과 신속한 허락을 보장할 수 있는 저작권 창구의 일원화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는 저작물 이용에 대한 관리를 체계화해, 저작권 침해 사건 접수 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한 방안이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무단 촬영·녹음·배포 근절 캠페인의 지속적인 진행과 홍보, 그리고 수용자 저작권 교육을 통해 공연 관람객의 인식을 바꾸는 작업 또한 필요하다. 무단 촬영·녹음·배포와 더불어 수용자들이 무단 촬영·녹음 콘텐츠를 불법으로 인지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의 필요성, 불법 이용에 대한 사례 교육 등을 통해 콘텐츠의 합법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교육이 필요하다.

이와 같은 정부와 민간 차원의 공동 대응을 통해 건강한 공연 관람문화가 형성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 참고문헌

- 김민정. “[김민정의 예술적인 法] 뮤지컬 공연 속 저작권은 누구에게”, 2019.4.28.  
<https://www.opinio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6836>
- 김수현. “영화관에서 녹화하면 위법...공연장 '밀캠' '밀녹'은?”, SBS. 2020.9.24.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6508](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5996508)
- 동아일보. “여성 관객 72% “연극·뮤지컬 온라인 공연 호의적”, 2021.4.15.  
<https://www.donga.com/news/Culture/article/all/20210415/106427505/1>
- 박병성.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들어선 뮤지컬 시장”, 더뮤지컬. 2023.4.5.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5072>
- 시흥타임즈. “엔데믹 맞아 온라인 공연 전년 대비 24배 증가”, 2023.2.2.  
<http://www.shtimes.kr/news/article.html?no=23884>
- 안세영. “[ISSUE] 뮤지컬 밀녹, 밀캠과의 전쟁에 나선 알앤디웍스”, 더뮤지컬. 2019.9.28.  
<https://www.themusical.co.kr/Magazine/Detail?num=4278>
- 예술경영지원센터. (2023). 2022 공연시장 동향 총결산. 예술경영지원센터
- 이지향. (2010). 뮤지컬 산업의 저작권 보호에 관한 인식과요인. 계간 저작권, 23(3), 92-111.
- 최민영. “코로나로 멈춘 현장공연, 네이버 공연 라이브에서 600회 열렸다”, 한겨레. 2021.1.4.  
<https://www.hani.co.kr/arti/economy/it/977209.html>
- 한국콘텐츠진흥원. (2023). 디지털전환 시대 콘텐츠 이용 트렌드 연구. 한국콘텐츠진흥원

• 본 내용은 저작권보호심의위원회 심의위원의 개인적 견해로, 한국저작권보호원의 공식적인 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